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에 대하여

姜 玗 錫

목 차

- I. 머리말
- II. 문헌에서의 殯
 1. 문헌에 나타난 殯
 2. 殯의 개괄적인 내용
- III. 殯屋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1. 빈옥의 위치
 2. 빈옥의 구조
- IV. 고분의 埴輪배치와 장식벽화에 나타난 殯의 모습
 1. 埴輪의 배치 상황
 2. 장식벽화에 나타난 모습
- V. 결어

〈 요약 〉

본고는 한국 상장례 중에서 빈의 연구에 대한 선행적인 작업으로써,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있다. 殯(모가리)은 일본 고대의 상장례 중의 하나로서, 사람의 죽음부터 장지에 매장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일련의 의례를 말한다. 이것은 『魏志』倭人傳이나 『日本書紀』 등의 문헌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헌기록을 통해서 3세기대부터 상장례에서 殯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고학에서도 埴輪의 배치나 線刻畫 및 장식벽화에서도 殯 의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殯의 기간, 빈옥의 위치 및 구조, 그리고 殯의 내용에 대해서 고대의 문헌기록과 고고 유구 및 유물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殯의 기간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마다 다르며, 또한 같은 天皇이라도 2개월부터 5년 8개월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또한 고고학적 검토에서는 인골과 사람의 대변 분석을 통하여 문헌기록의 8일이나 10여일로 합치한다고 보고 있다. 빈옥의 위치는 屋外에 있다는 문헌기록과 고분의 주위에 있다는 고고학적 연구결과도 있다. 빈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헌의 기록에서는 칼로써 베어 무너뜨릴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고고학의 家形埴輪이나 장식벽화에 묘사된 것을 보면 견고한 가옥 구조로 되어 있다. 殯 동안에 실시된 의례는 문헌기록이나 고분의 埴輪配置 및 장식벽화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볼 때, 사자의 招魂이나 鎮魂등을 위한 歌舞나 기도, 그리고 供膳儀禮 등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일본 고대의 殯에 대한 검토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고대의 빈 연구에 있어서 참고가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殯(모가리), 상장례, 殯屋(喪屋), 埴輪, 장식벽화

(접수일 : 2005. 4. 22, 심사일 : 2005. 5. 24, 심사완료일 : 2005. 6. 4)

I. 머리말

공주 정지산 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殯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武寧王陵의 誌石을 통하여 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정지산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빈의 장소 및 위치,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의 기간 및 장소, 빈의 구조, 그리고 빈 동안에 실시된 의례에 대해서는 완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은 역시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의 연구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의 남겨진 과제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殯의 기간이나 장소, 그리고 殯屋의 구조 등에 관해서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일본 고대의 상장례 중에서 殯은 중요한 의례중의 하나였다. 殯은 피장자를 埋葬하기까지 遺體를 小屋내에 안치하거나 仮埋葬하여, 유족이나 근친자들이 소옥에서 諸儀禮를 다하고 봉사하는 일본 고대에 있어서 普通的으로 행해진 葬制이다¹⁾. 이것에 대해서는 『魏志』倭人傳이나 『日本書紀』 등에 기록이 있어서, 그것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으로 고고학자들은 고분에서 출토되는 埴輪과 같은 특정유물이나 석실 안에 그려져 있는 裝飾壁畫등을 통해서 殯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를 해왔다. 이와 같이 殯에 대한 연구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유구 및 유물을 상호 비교·검토함으로써, 연구가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고대의 殯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겸해서 한국의 빈에 대한 연구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 殯에 대한 상호 비교·검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II. 문헌에서의 殯

1. 문헌에 나타난 殯

일본 고대의 상장례와 殯에 대한 문헌기록은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단편적인 사

1) 和田萃, 1969. 「殯の基礎的考察」 『史林』第53卷 第5号, 36.

실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전모를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다음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상장례와 殯에 대한 내용이다.

A. 『魏志』倭人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棺은 쓰지만 槨은 없다. 흙을 모아서 봉분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10여일 동안 시체를 집에 두는데, 이 때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때 상주는 곡을 하고 울지만, 타인은 음주가무를 한다. 장사를 지내고 나면 온 집안 식구가 물 속에 들어가 몸을 씻고 연목과 같이 한다.”²⁾

B. 『隋書』倭國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棺槨에 엮을 해서 넣고, 친척들과 손들은 死體 앞에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 죽은 사람의 처자나 형제는 흰 무명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貴人은 3년 동안 밖에 빈소를 만들어 두고, 서인은 아무 때나 날짜를 정해서 매장한다. 장사를 지낼 때는 사체를 배 위에 놓아두고, 육지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혹은 작은 가마에 실어서 올리기도 한다.”³⁾

C-1. 『古事記』上卷 「天若日子의 죽음」에는 “하늘에 있는 天若日子(아메노와카히코)의 아버지인 天津國王(아마쓰쿠니타마)의 신과 그(天若日子)처자가 이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슬프게 울면서 그 곳에다 喪屋을 세우고, 강의 기러기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는 역할을 맡겼다. 백로로 하여금 청소를 하는 역할을, 물총새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기고, 참새에게는 절구로 쌀을 찧는 역할을 맡기고, 꿩에게는 우는 역할을 맡겼다. 이와 같이 각자의 해야 할 역할을 정하고, 8일 밤낮으로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⁴⁾

C-2. 『古事記』上卷 「天若日子의 죽음」에는 “이때에 阿遲志貴高日子根(아지시키타카히코네)의 신이 와서 天若日子(아메노와카히코)의 상을 조문하였다. …(중략)… 이처럼 阿遲志貴高日子根(아지시키타카히코네)의 신을 天若日子(아메노와카히코)로 잘못 착각한 이유는 이 두 신의 모습이 서로 매우 닮았었기 때문에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阿遲志貴高日子根(아지시키타카히코네)의 신은 매우 화를 내면서, …(중략)… 차고 있던 十掬劍(토쓰카쓰루기)이라는 칼을 뽑아서 그 喪屋을 부수고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⁵⁾

D-1. 『日本書紀』권2 神代 下 “天國王은 그 哭泣하는 소리를 들어 天稚彥이 죽어 버린 것을 알고, 疾風(하야치)을 파견하여 그 사체를 하늘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상가를 지어서 殯(모가리)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의례에서 川鴈(가와가리)를 持傾頭者(기사리모치)와 持帚者(하하기모치)로 하고(一說에는 鷄를 爲持傾頭者로 하고, 川鴈을 爲持帚者로 한다고 이른다),

2) 其死有棺無槨 封土作冢 始死停喪十餘日 當時不食肉 喪主哭泣 他人就歌舞飲酒 其葬舉家詣水中澡浴 以如練沐.

3) 死者斂以棺槨 親賓就屍歌舞 妻子兄弟以白布裝服 貴人三年殯於外 庶人卜日而瘞 及葬置屍船上 陸地牽之 或以小輦.

4) 於是 在天若日子之父, 天津國王神, 及其妻子聞而, 降來哭非, 乃於其處作喪屋而, 河鴈爲岐佐理持, 鷺爲掃持, 鳥爲御食人, 雀爲雉女, 雉爲哭女, 如此行定而, 日八日夜八夜, 以遊也.

5) 此時, 阿遲志貴高日子根神到而, 弔天若日子之喪時, …(中略)…其過所以者, 此二柱神之容姿, 甚能相似 故, 是以過也, 於是, 阿遲志貴高日子根神, 大怒…(中略)…云而, 拔所御佩之十掬劍, 切伏其喪屋, 以足蹶離遣.

雀을 舂女(쓰기메)로 하였다(一說에는 川鴈을 持傾頭者로 하고, 또 持帚者로 한다. 鳩(물총새)을 尸者(모노마사)로 하고, 雀을 舂者로 하고, 鷓鴣(뱀새)를 哭者로 하고, 鷄(술개)를 造綿者(와다쓰구리)로 하고, 鳥를 穴人者(시시히도)로 하였다. 모두 여러 새를 殯(모가리)의 의례에 종사시켰다.). 그리고 八日八夜 울면서 슬픔을 노래하였다.”⁶⁾

D-2 『日本書紀』권2 神代 下 “…(前略)… 이에 앞서 天稚彥이 葦原中國에 있을 때, 味耜高彥根神과 친했다. 이 때문에 味耜高彥根神은 하늘에 올라가서 天稚彥의 喪事를 聞喪하였다. 그런데 이 신(味耜高彥根神)의 얼굴 모양이 꼭 天稚彥의 생전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天稚彥의 친숙 처자가 다, “우리 天稚彥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옷을 붙잡고 울며 반가와했다. 잘못 바뀌어진 味耜高彥根神은 얼굴이 빨개지며 노하여, …(중략)…라고 말하고, 그 佩刀의 大葉刈(오오하가리)를 빼서 喪屋을 베어 엮어 버렸다.”⁷⁾

이상의 A~D-2의 문헌에서 상장례와 殯의 기록을 살펴보았다⁸⁾.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간

- 6) 天國王, 聞其哭聲, 則知夫天稚彥已死, 乃遣疾風, 舉尸致天, 便造喪屋而殯之, 即以 川鴈, 爲持傾頭者及持帚者(一云, 以鷄爲持傾頭者, 以川鴈爲持帚者), 又以雀爲舂女.(一云, 乃以川鴈爲持傾頭者, 亦爲持帚者, 以唱爲造綿者, 以鳥爲穴人者, 凡以衆鳥任事.)而八日八夜, 啼哭悲歌.
- 7) 天稚彥在於葦原中國也, 與味耜高彥根神友善. 故味耜高彥根神, 昇天弔喪, 時此神容貌, 正類天稚彥平生之儀. 故天稚彥親屬妻子皆謂, 吾君猶在, 則攀牽衣帶, 且喜且慟, 時味耜高彥根神, 忿然作色曰, …(中略)… 則拔其帶劔大葉刈, 以斫喪屋.
- 8) 한국의 경우에 殯을 엮을 수 있는 문헌기록이 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다.
 - (1) 『三國志』「東夷傳 東沃沮」, “사람을 장사지내는 것을 보면 큰 나무로 槲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십여길이나 된다. 이것을 한쪽머리에 문을 만들어 놓는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仮埋葬을 해 놓는다. 이 시체는 겨우 몸만 가릴 만큼 흙으로 덮었다가 살이 모두 썩으면 그 뼈만을 추려서 이 팍 속에 넣는다. 이리하여 한 집안 사람의 뼈가 이 한 槲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나무로 산 사람의 모양을 새겨 꽃아서 이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된다. 또 기와로 만든 술을 팍 끝에 달아매고 그 속에 쌀을 넣어 두는 것이 역시 그 나라 풍속이다.”
 - (2) 『三國志』「東夷傳 濊」, “사람이 혹중한 병으로 앓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짓고 살았다.” 이 기사에 대해서 權五榮은 “옛집은 死者의 것이란 인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일종의 家殯이 행해졌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20, 韓國古代史學會, 9).
 - (3) 『三國志』「東夷傳 夫餘」“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 두고 또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한다. 이 순장 하는데 있어 사람을 죽일 때는 백여명까지 죽인다. 그리고 장례를 후하게 지내는 사람은 棺은 있어도 팍은 없다.”
 - (4) 『三國志』「東夷傳 夫餘」魏略에는 “이 지방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다섯 달 동안 집에 두는데 오래 둘수록 좋은 것으로 여긴다.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때는 음식을 날것으로도 장만하고 익힌 것으로도 한다. 상주 된 사람은 되도록 장례를 빨리 지내려 하지 않지만 타인들이 억지로 지내게 한다. 居喪하는데는 남자가 모두 흰옷을 입고 여자는 목걸이나 패물을 때 놓는다. 이런 풍속은 대체로 중국과 방불하다.”
 - (5) 『周書』「異域傳 高麗」“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에 쓰는 복제는 중국과 똑같다. 그러나 형제간에는 석달 복 밖에 입지 않는다.”
 - (6) 『周書』「異域傳 百濟」“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三年동안 복을 입는다. 그 나머지 친척들은 장사만 치르면 이내

단히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8일이나 10일 정도, 그리고 貴人の 경우에는 3년 동안 殯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람은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고 장사를 지냈던 것 같다. 특히 빈소를 만들어서 8일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하고, 특별히 각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각종 의례와 공헌 등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 기록을 볼 때, 殯은 일본 고대에 있어서 늦어도 3세기부터 상장례에서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殯의 개괄적인 내용

여기서는 殯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殯의 起源과 그 기간,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한 연구시각과 성과를 정리해 본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殯이란 죽음부터 매장까지의 기간 동안에 遺骸는 喪屋·殯宮에 안치되어 仮埋葬되며, 분묘에 본격적으로 매장되기까지 유족이나 많은 관계자들에 의해서 供膳·歌舞·誄詞奏上 등의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해진 것을 말한다⁹⁾. 殯의 기원에 대해 확실히 단증할 만한 문헌기록은 없다. 그러나, 和田萃는 중국 남부에서 중부 인도, 폴리네시아 등지에서 넓게 분포하는 復葬形式이라는 점에서, 또는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빈(殯)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¹⁰⁾고 보고 있다. 일본의 殯(모가리)은 중국 喪葬儀禮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殯」字¹¹⁾에 해당했으며, 3세기 단계에서는 중국의 빈(殯)과는 달랐다고 한다. 6세기 전반(安閑·宣化期)에 百濟系 渡來인이 일본에 전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이 빈(殯)은 점차로 일본 고유의 葬制인 殯(모가리)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殯(모가리)이 의례로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殯의 기간은 피장자의 신분 및 지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상기의 A, B, C-1, D-1의 기록에 의하면, 八日八夜 또는 10여일, 그리고 貴人は 3년 동안 실시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日本書紀』의 기록(〈표 1〉)에는 같은 천황이라도 짧게는 2개월, 길

복을 벗는다.”

(7) 『隋書』「東夷傳 新羅」“사람이 죽으면 관을 쓰고 염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다. 왕이나 부모, 그리고 처자가 죽었을 때도 1년밖에 복을 입지 않는다.”

이상의 문헌 해석은 李民樹 譯, 1995, 『朝鮮傳』探求新書 67, 探求堂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9) 1. 和田萃, 1969, 「앞글」(주 1), 32~90.

2. 久保哲三, 1984, 「モガリと古墳」『季刊考古學』第9号, 雄山閣, 66~70.

3. 川村邦光, 1995, 「モガリ(殯)と他界觀」『西谷眞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10) 和田萃, 1969, 「앞글」(주 1), 36.

11) 殯의 字義 그 자체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기까지의 동안에 遺體를 관에 넣어서 임시로 안치해 두는 것”이라고 한다(和田萃, 1969, 「앞글」(주 1), 36).

12) 和田萃, 1969, 「앞글」(주 1), 61.

13) 한국의 경우는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武寧王과 王妃의 誌石을 통해서 殯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지식에 기록된

개는 5년 8개월까지로 그 기간의 편차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舒明, 敏達, 天武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8개월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政勢에 기인한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다¹⁴⁾.

<표 1> 殯의 史料整理¹⁵⁾

	欽明	敏達	推古	舒明	孝德	齊明	天智	天武	持統	文武
崩御年月	32.4	敏達 14.8	36.3	舒明 13.10	白雉 5.10	齊明 7.7	10.12	朱鳥 1.9	大寶2.12	慶雲 4.6
崩御場所	磯城島金刺宮	譯語田幸玉宮?	小墾田宮	百濟宮	難波長柄豊隣宮	朝倉宮	近江宮	飛鳥淨御原宮	藤原宮	藤原宮
殯宮年月	32.5	敏達 14.8	36.3	舒明 13.10	白雉 5.10	齊明 7.11	10.12	朱鳥 1.9	大寶2.12	慶雲 4.6
殯宮場所	河內古市	廣瀬	南廷	宮北	南廷	鳥飛川原	新宮	南廷	西殿	不明
埋葬年月	2.9	崇峻 4.4	36.9	皇極 1.12 (2.9)	白雉 5.12	天智 6.2	불명	持統 2.11	大寶3.12	慶雲4.11
埋葬地	檜隈坂合陵	磯長陵	竹田皇子陵	滑谷崗 (押坂陵)	大坂磯長陵	小市岡陵	불명	大內陵	大內陵	檜隈安古山陵
殯의 期間	4개월	5년8개월	6개월	1년2개월 (1년11개월)	2개월	5년3개월	불명	2년2개월	1년	5개월

한편으로, 首長層에 있어서 殯은 통상 분묘축조나 의례의 규모와 관련을 가지면서, 수개월

내용을 바탕으로, 빈에 대해서 아래의 表로 정리하였다(小田富士雄, 2000, 「武寧王陵文物をめぐる東アジア世界, 補説・武寧王陵誌石と王室喪葬儀禮」 『日韓交渉考古學の基礎的研究—原史・古代を中心に—』 第240号, 福岡大學總合研究所, 196).

	崩御年月	享年	殯所	殯의 期間	本葬 / 改葬
武寧王	癸卯年(523) 5월 7일	62세	?	27개월	乙巳年(525)8월 12일 申地 “安厝登冠大墓” (왕성의 南西)
王妃	丙午年(526) 12월	?	居喪在酉地 (왕성의 正西)	28개월	己酉年(529) 2월 12일 改葬 “改葬還大墓”

무령왕과 왕비의 27, 28개월에 대해서, 權五榮은 “최초의 죽음에서 殯이 종료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은 殯의 기간임과 동시에 喪服의 기간이기도 하였다”고 보고 있다(權五榮, 2000, 「앞글」(주 8-(2)), 15).

14) 和田萃, 1969, 「앞글」(주 1).

15) 和田萃, 1969, 「앞글」(주 1), 표1 殯사료의 정리, 44.

내로서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분석 사례가 있다. 에비노(えびの)市 島内 地下式 横穴墓群 69호의 여성의 大便분석을 통하여, 적어도 1주일 이상 경과한 단계에서 이 피장자는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분석으로 殯은 적어도 死後 수 일동안에 행해졌으며, 일주일을 넘어 수일이 지나면 매장된다는 이미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書紀』의 “八日八夜”나 『魏志』倭人傳의 “十余日”이라는 日數와도 합치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¹⁷⁾.

殯의 場所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南庭, 宮北, 西殿 등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推古·孝德·天武 천황의 경우에는 南庭으로 일치한다. 물론 천황의 경우는 여러 장소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崩御했던 宮의 근방인 南庭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隋書』倭國傳의 기록에 의하면 貴人은 屋外에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문헌에 나타난 殯의 장소는 천황의 경우는 대체로 宮의 근방인 南庭이 많으며, 특별히 귀인은 屋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한편, 殯은 「大化薄葬令」과 불교식 장례로 인하여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大化 2年(646년)에 상장례의 범위와 규모를 법으로 정하는 「大化薄葬令」이 공포되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薄葬令은 왕을 제외한 관리들에게 석실, 분구, 役夫, 葬具의 크기와 규모 등에 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殯이나 殉葬, 그리고 보물 등과 같은 부장품을 공헌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16) 田中良之, 2004. 「殯再考」『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673~674.

17) 田中良之, 2004. 「앞글」(주 16), 670~674.

18) 한국에서 빈의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는 武寧王의 王妃 誌石일 것이다. 王妃의 誌石에는 酉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왕비의 殯殿이 酉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酉地의 위치는 왕의 買地券에 나오는 申地가 무령왕릉이 분명한 만큼 무령왕릉의 북방에 해당되며, 이때의 기준점은 公山城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酉地는 艇止山일대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지산 유적이 왕비의 빈전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빈전으로 판단되는 이른바 大壁建物址와 水庫로 추정되는 유구를 들고 있다(權五榮, 2000. 「앞글」(주 8-(2)), 17~19). 한편, 이남석은 정지산 유적을 빈전으로 보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2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방향의 설정에 대한 것이다. “丁支에 의한 방위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가 있고, 좁게 설정된 범위에서 또 다시 신지, 경지, 유지로 세분하는데, 무령왕릉과 정지산 사이를 3개의 권역을 구분할 만한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신지와 유지사이의 경지설정은 다소 인위적인 감이 없지 않다”고 보면서, 빈소의 위치추정을 위한 방위기준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송산리 백제고분군내의 적석유구의 존재이다. 이 적석유구는 분묘가 아닌 제사시설 혹은 빈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지산 유적은 유구의 내용으로 보아 빈소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지산 유적을 빈소로 보기 위해서 방위문제 외에 공산성에서 정지산까지, 그리고 정지산에서 무령왕릉까지의 접근성 문제라던가, 백제왕실에서 빈소의 운영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李南奭, 1999. 「부록1 정지산 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艇止山』, 학술조사총서 제7책, 국립공주박물관·(주) 현대건설, 377~378).

〈表 2〉大化薄葬令 規定¹⁹⁾

		王以上	上臣	下臣	大仁·小仁	大禮~小智	庶民
石室	奥行	9척(2.70m)	좌동	좌동	9척(2.70m)	좌동	없음
	높이	5척(1.50m)	좌동	좌동	4척(1.20m)	좌동	없음
	폭	5척(1.50m)	좌동	좌동	4척(1.20m)	좌동	없음
墳丘	方形	9尋	7尋	5尋	不封使平	不封使平	收埋於地
	높이	5尋	3尋	2尋半			
役夫	人數	1,000명	500명	250명	100명	50명	없음
	日數	7일	5일	3일	1일	1일	없음
葬具	帷帳	白布	白布	白布	白布	白布	麻布
		輜車	担而行之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박장령의 의도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²⁰⁾, 이것으로 인하여 殯 기간의 단축이나 상장례의 규모 및 내용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박장령이 殯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불교식 장례의 도입과 火葬의 채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²¹⁾.

그러면 이 殯 동안에 행해진 의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A, B, C-1, D-1의 문헌기록을 통해서 엿 볼 수 있다. 특히, C-1이나 D-1의 기록에서는 殯 의례의 여러 역할 분담자가 새(鳥)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 두 문헌은 각 분담자가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持傾頭者·岐佐理持, 持帚者, 舂女, 御食人, 泣女, 造綿者, 穴人, 尸者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持傾頭者는 유체의 頭向을 바꾸거나 관에 넣는 역할, 持帚者는 사자의 생전의 집이나 葬儀의 장소를 청소하는 역할, 舂女는 사자에게 공헌하기 위한 쌀을 찧는 역할, 御食人은 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역할, 泣女는 葬儀가 장지로 향할 때 큰 소리로 뭇을 하는 역할, 造綿者는 사자의 유체를 씻거나 관내의 사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틈을 면으로 채우거나 또는 장례에 사용되는 布帛을 제작하는 역할, 穴人은 사자에 공헌하는 수육을 요리하는 역할, 尸者는 사자의 代理로서 장의에 참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²²⁾.

19) 岩瀬 透, 1998, 「第3章 古墳のおわり」『大化の薄葬令』, 特別展圖録 16, 大阪府近つ飛鳥博物館, 〈표 1〉大化薄葬令規定一覽, 67.

20) 박장령은 천황의 지위를 절대시하고, 諸豪族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박장령의 규정을 넘는 규모의 횡혈식 석실의 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小田富士雄·瓜生秀文, 1999, 「原始·古代 第4章 古墳時代」『筑紫野市史』上卷, 655~659).

21) 和田萃, 1969, 「앞글」(주 1), 680~682.

22) 下原幸裕, 2003, 「古墳時代喪葬の理解にむけて」『七隈史學』第4号, 七隈史學會.

문헌에 기록된 새의 역할을 바탕으로 殯 의례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持傾頭者가 관에 그 유체를 넣고, 관과 유체의 틈 사이에 造綿者가 면을 채워서 喪屋에 안치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연일 밤낮으로 사자의 생환을 기원하는 歌舞를 하고, 친척들은 사자의 대리인 尸者와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음식물은 舂女(碓女)·穴人이 준비하고, 尸者에는 특히 御食人이 제공된다. 그 동안에 泣女가 鎮魂하는 뜻을 하고 사자의 再生을 계속 기원한다.”²³⁾ 이처럼, 문헌에서 나타난 殯 의례에서는 사자의 재생을 기원하고 진혼하는 의례와 가무를 실시하고, 또한 음식물 공헌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Ⅲ. 殯屋에 대한 考古學的 논의

여기서는 고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殯屋의 위치와 구조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시각과 성과를 살펴본다. 먼저 빈옥의 위치에 대한 제 논의를 검토해 보고, 그 다음으로 埴輪配置와 裝飾壁畫에 나타난 빈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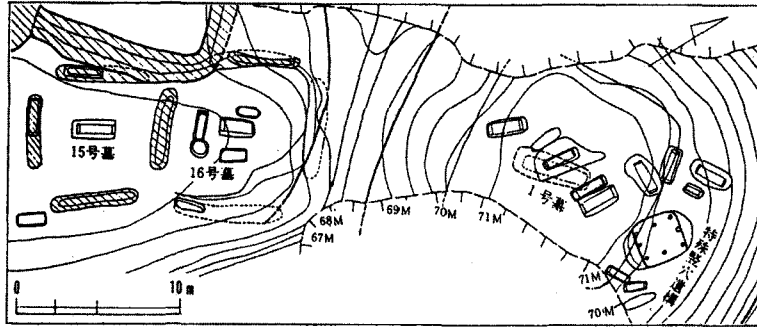
1. 殯屋의 위치

殯을 실시하는 喪屋은 殯屋이라고도 한다. 천황의 경우에는 殯宮 또는 殯殿 이라고 하는 시설이 설치된다. 이 빈옥은 B, C-1·2 그리고 D-1·2의 문헌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 빈옥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일련의 고고학적 논의가 있었다²⁴⁾. 泉森皎와 土生田純之는 빈옥이 野外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이 있는 유구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다. 泉森皎는 고분군 내에 있는 주거지를 빈옥으로 생각하고, 8곳의 유적을 대상으로 그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였다²⁵⁾. ①島根縣 宮山古墳群(주거지는 5.4×5.6m의 규모), ②福井市 安保山古墳群(주거지는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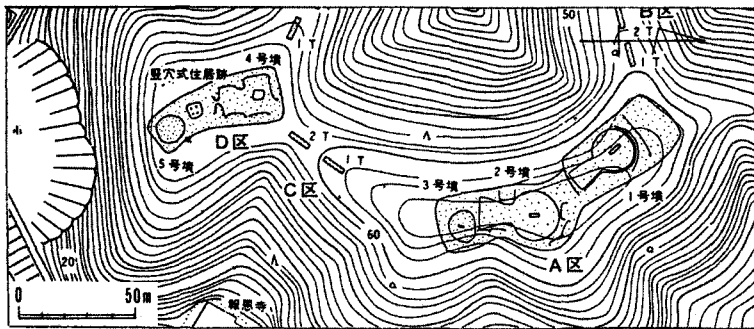
23) 下原幸裕, 2003. 「앞글」(주 22), 163.

24) 한국의 경우 고고학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지산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벽주 건물지 중에서 기와 건물지의 성격을 殯殿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와 건물지는 능선 평단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는 다른 시설물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기와지붕을 올린 건물이라는 점에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壁溝가 없이 주혈만으로 이루어진 점과 이 건물의 大柱穴이 小柱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점, 그리고 4벽이 막힌 폐쇄된 상태로 존재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건물은 일상생활용 건물이라기 보다는 殯殿으로 간주하고 있다(金吉植, 2001.12, 「水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 遺蹟의 性格」 『考古學誌』第1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62~69).

25) 泉森皎, 1983. 「古墳と周邊施設 —古墳の墓域と喪屋遺構について—」 『關西大學考古學研究室開設參拾周年記念考古學論叢』, 關西大學考古學研究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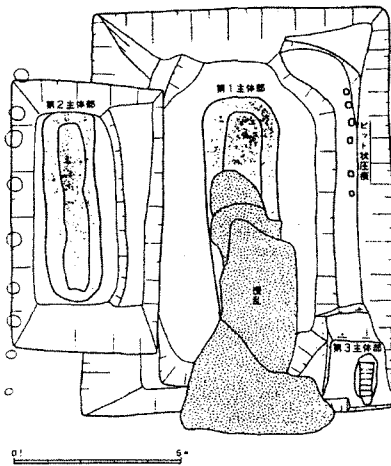


① 金沢市 七ツ塚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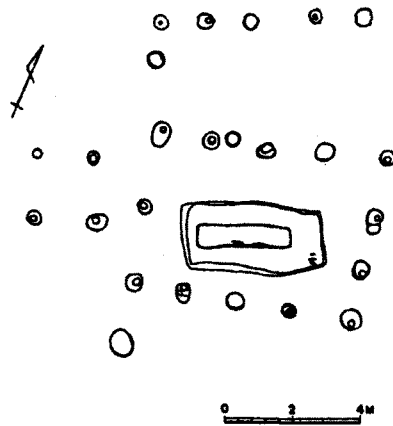
② 福井市 安保山古墳群

고분 주위의 住居址 : ① ② (泉森皎 1983)



③ 八幡市 ヒル塚古墳 (土生田純之 1991)

고분 주위의 柱穴 : ③ ④



④ 神戸市 住吉東古墳 (田中良之 2004)

<삽도 1> 빈옥의 위치

의 남단에 있으며, 전방후원분의 4호와 5호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것은 4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규모는 5.06×5.50m(도면1-②), ③金澤市 七ツ塚墳墓群(토광묘군의 한쪽에 수혈주거상의 유구(特殊豎穴遺構) 1기가 검출, 한변이 4m의 방형)(도면1-①), ④五條市 近内古墳 西山支群(주거지는 箱式石棺을 주체로 하는 1호 주구묘의 동쪽 14m지점에서 검출된 수혈주거지로 한변이 45m), ⑤天理市 石峰A2号墳(A2号墳의 下層에서 검출된 유구로 생토면을 파고 敷石을 간 豎穴狀 敷石遺構, 한변이 2.4m의 정방형), ⑥黑石14号墳(方墳의 하층에서 검출된 豎穴狀 燒土遺構, 한변이 2.4×2.2m의 정방형), ⑦タイ山 群集墳(3호분과 10호분의 중간에서 발견된 圓形住居), ⑧元井池古墳(목관이 直葬된 下層에서 方形豎穴遺構, 규모는 2.4×3.2m)²⁶⁾. 이러한 주거지들이 고분과 같은 시기이면서 단독적으로 존재하므로 장송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지들을 殯(喪)屋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⁷⁾.

고분에서 검출된 柱穴, 특히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주혈은 殯屋이 존재했던 흔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로 京都府 八幡市 ヒル(히루)塚古墳이나 神戸市 住吉東古墳을 들 수 있다²⁸⁾. ヒル(히루)塚古墳에서는 粘土槨을 내장한 2단 묘광의 테라스상에 피트狀 흔적이 6개 검출되었다. 이 피트의 흔적은 매장주체부의 상부를 덮은 어떤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삽도1-③). 그리고 住吉東古墳에서는 분구의 내부의 주혈 상태로 보아서, 3×4칸의 切妻造의 건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삽도1-④). 이 두 사례에서 고분의 내부 및 주위에 있는 주혈은 빈옥이 존재했던 고고학적 흔적(증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분군 주위의 주거지나 고분의 내부 및 주위에 빈옥이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 田中良之는 異見을 제시하였다²⁹⁾. 먼저, 泉森皎의 고분군의 주위에 있는 주거지를 빈옥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례와 관련된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또한 개개의 고분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분 조영시의 자재를 놓는 곳이나 작업 오두막, 墓守와 같은 고분군의 관리시설일 가능성도 아울러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리고 土生田純之의 고분의 매장주체부나 주위의 주혈이 빈옥의 흔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모가리 본래의 기능이 死後 直後에 시작되어 매장직전까지 행해진다면 피장자의 사후 매장주체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유체를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래서 유체를 안치하는 장소인 빈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분묘 주위에서는 음주가무와

26) 泉森皎, 1983, 『앞글』(주 25), 241~250.

27) 한국의 경우, 石村洞 4호분 주변의 豎穴遺構(동서 36m, 남북 3.2m)를 殯殿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4호분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과 瓦類의 존재를 들고 있다(權五榮, 2000, 『앞글』(주 8-(2)), 16~17).

28) 土生田純之, 1991, 「古墳における儀禮の研究—木柱をめぐって—」『九州文化研究所紀要』36号, 54~55.

29) 田中良之, 1999, 『人骨および人骨付着昆虫遺体からみた古墳時代モガリの研究』, 平成9~10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 研究成果報告書,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 2004, 『앞글』(주 16).

30) 田中良之, 1999, 『앞책』(주 29), 11.

때로는 유체를 씻거나 보전, 그리고 관리상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田中良之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빈옥은 聚落内の 가까운 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다³¹⁾.

2. 殯屋의 구조

빈옥의 구조에 대해서는 C-2 문헌의 “阿遲志貴高日子根의 신은 매우 화를 내면서, 차고 있던 十掬劍이라는 칼을 뽑아서 그 喪屋을 부수고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나 D-2 문헌의 “味耜高彥根神은 얼굴이 빨개지며 노하여, 그 佩刀의 大葉刈를 빼서 喪屋을 베어 덮어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문헌기록에 나타난 빈옥은 칼로써 베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간단한 시설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빈옥이 고고학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묘사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실마리는 고분출토의 埴輪이나 裝飾壁畫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埼玉 瓦塚古墳에서 출토된 埴輪群像 중에서 2棟의 家形埴輪이 출토되었다³²⁾. 이 중 하나는 總柱의 高床式 건물로써 壁體가 없는 건축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4壁이 세워진 寄棟造의 가옥으로 용마루 위에 堅魚木이 달려있다(삼도 2-①·②). 전자는 개방적인 구조로 보아 舞臺로서, 후자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피장자를 안치한 殯屋으로 간주하고 있다³³⁾. 이 家形埴輪의 구조적인 특징에서만 본다면, 빈옥은 어느 정도 폐쇄적인 구조로 보인다. 그렇지만 田中良之는 松山 葉佐池古墳 1호 석실 B人骨에 부착된 파리 團蛹殼의 분석을 통하여 빈옥이 약간 개방적인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빈옥에 유체가 안치된 모습, 즉 “파리는 暗闇에서 활동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유체는 어느 정도 빛이 들어가는 게다가 밀폐되지 않은 환경조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이처럼 빈옥의 구조는 유체가 안치된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고분의 장식벽화에에서도 殯屋을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福岡縣의 筑紫野市 五郎山古墳과 香川縣 善通寺市 宮ヶ尾古墳을 들 수 있다. 五郎山古墳은 6세기 후반의 횡혈식 석실로서 석실 안에 배, 무녀, 기마 인물, 동물, 별 등이 그려져 있어 장식벽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⁵⁾. 특히 玄室 奧壁의 벽화 중에서 家라고 추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切妻造의 지붕에 4개의 기둥이 있다. 이 家의 높이는 36cm, 지붕 쪽의 최대 폭은 34cm이다. 안쪽

31) 田中良之, 1999. 『앞책』(주 29),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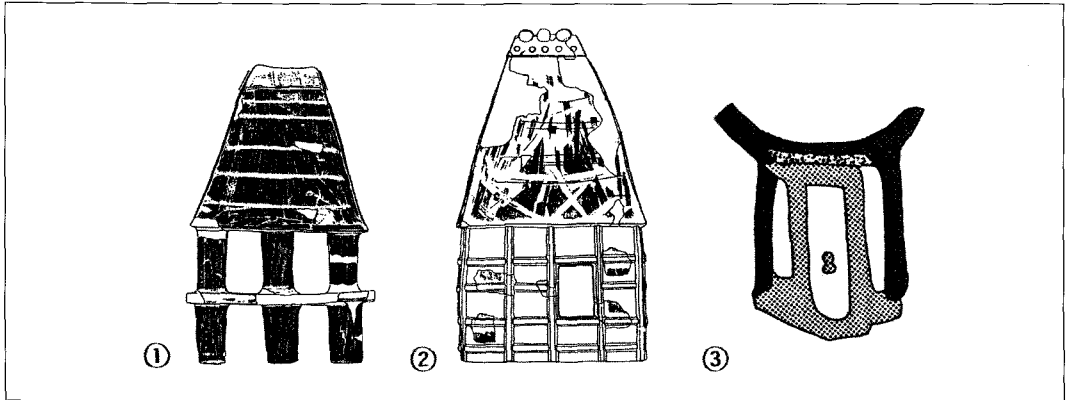
32) 若松良一, 1992. 「再生の祈りと人物埴輪—埴輪群像は殯(もがり)を再現している—」『東アジア古代文化』72号, 大和書房.

33) 若松良一, 1992. 「앞글」(주 32), 147~151.

34) 田中良之, 2004. 「앞글」(주 16), 673.

35) 筑紫野市教育委員會, 1998. 『國史跡五郎山古墳-保存整備事業に伴う發掘調査-』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 57集, 福

의 기둥 사이에는 높이 35cm, 폭 2cm의 8자형의 작은 圖像이 그려져 있다(삽도2-③). 보고자는 이 건물을 殯屋으로 보고 있다³⁶⁾.



〈삽도 2〉 빈옥의 구조 (① 舞臺 ②~③ 빈옥)

한편 宮ヶ尾古墳은 6세기대의 횡혈식 석실분으로 奥壁과 側壁에 인물을 비롯한 線刻畫가 그려져 있다³⁷⁾. 특히 오벽에는 殯 의례와 관련된 線刻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삽도5-②).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는 5명의 인물과 기둥이라고 생각되는 縱線, 그리고 小屋같은 형태의 그림과 그곳에 옆으로 누운 인물 1명이 그려져 있다. 小屋에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이 소옥은 단순한 住居가 아니라 장송에 관련된 소옥, 즉 빈옥으로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문헌기록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빈옥은 간단한 구조의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瓦塚古墳에서의 家形埴輪과 五郎山古墳의 장식벽화에서 보면 빈옥은 高床式 및 平地式 構造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高床式 建物の 빈옥은 일정한 높이가 있는 점에서 하늘로 上天한 혼을 진혼하여 招魂하려는 경우에는 평지식의 빈옥보다 더 적합한 것³⁹⁾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古代 首長層의 빈옥은 신분의 표시로서 또한 依代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堅漁木을 게양한 빈옥⁴⁰⁾이 어울릴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것 같다⁴¹⁾.

岡大學 考古學研究室.

36) 小田富士雄, 1998. 「彩色壁畫考」『國史跡五郎山古墳-保存整備事業に伴う發掘調査-』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 57集, 筑紫野市教育委員會・福岡大學 考古學研究室, 68~80.

37) 笹川龍一, 1995. 「線刻畫古墳の諸問題」古代學協會四國支部 第9回 徳島大會資料
田中良之, 2004. 「앞글」(주 16), 재인용.

38) 田中良之, 2004. 「앞글」(주 16), 676.

39) 下原幸裕, 2003. 「앞글」(주 22), 156.

40) 若松良一, 1992. 「앞글」(주 32), 153.

41) 한국의 경우 정지산의 유적의 기와 건물지는 殯殿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장축 남북방향으로 長邊 8m, 短邊 6.4

IV. 고분의 埴輪배치와 장식벽화에 나타난 殯의 모습

고고학에서 殯의 복원은 埴輪과 장식벽화 등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분 주위에 배치된 埴輪은 그 배치양상이나 개개의 모습에서 殯 의례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분 석실내의 장식벽화도 殯의 모습을 그대로 벽화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1. 埴輪의 배치 상황

埴輪 중에서 특히 人物 埴輪은 武人, 巫女, 力士, 楯持人, 樂人, 狩人, 馬飼育人 등으로 다종다양하다. 이러한 인물 埴輪의 배치 및 모습은 殯 의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인물 埴輪의 배치를 바탕으로 埴輪배치의 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⁴²⁾. 이것은 그 모델을 5개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제1구역에는 피장자인 男子倚座像 또는 全身胡座像을 중심으로 近侍者의 坐像群, 제2구역은 采女⁴³⁾를 나타낸 여자의 全身·半身立像, 제3구역에는 武人의 男子全身立像이 놓인다. 제4구역은 한 손을 든 말사육을 나타낸 男子半身立像이 馬形埴輪과 함께 놓이며, 제5구역은 循持人物埴輪이 배치된다(삽도 3). 이러한 埴輪群의 배치상황을 바탕으로 殯 의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현하고 있다. “피장자를 중심으로 고위 근시자가 서고, 그 주위에 酒食을 봉사하는 采女가 있으며, 또한 武人埴輪이 신변호위를 위하여 대기한다. 그리고 밖에는 주인(피장자)이 탄 말을 끄는 마부가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는 방패를 든 병사가 지키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⁴⁴⁾

위의 埴輪의 배치는 瓦塚古墳의 埴輪群像의 배치와 일치하는 면도 있다. 瓦塚古墳의 埴輪群像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⁴⁵⁾. [I]은 인물 埴輪의 A군과 B군, 그리고 家形埴輪 2棟으로 되어 있다. 인물 埴輪 A군은 儀式 그룹의 女子像 2개와 護衛그룹 武人像 2개, 인물 埴輪

m의 규모이며, 기둥은 3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은 상부에 기와를 올렸으며, 일반 건물과는 달리 기둥을 받쳐주는 積心과 礎石이 없다. 이러한 구조로 보아 사용공간은 지상에 떠 있는 부분이고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립공주박물관·(주)현대건설, 1999, 『甕止山』, 학술조사총서 제7책).

42) 塚田良道, 1996, 「人物埴輪 形式分類」『考古學雜誌』第81卷 第3号, 日本考古學會
下原幸裕, 2003, 「앞글」(주 2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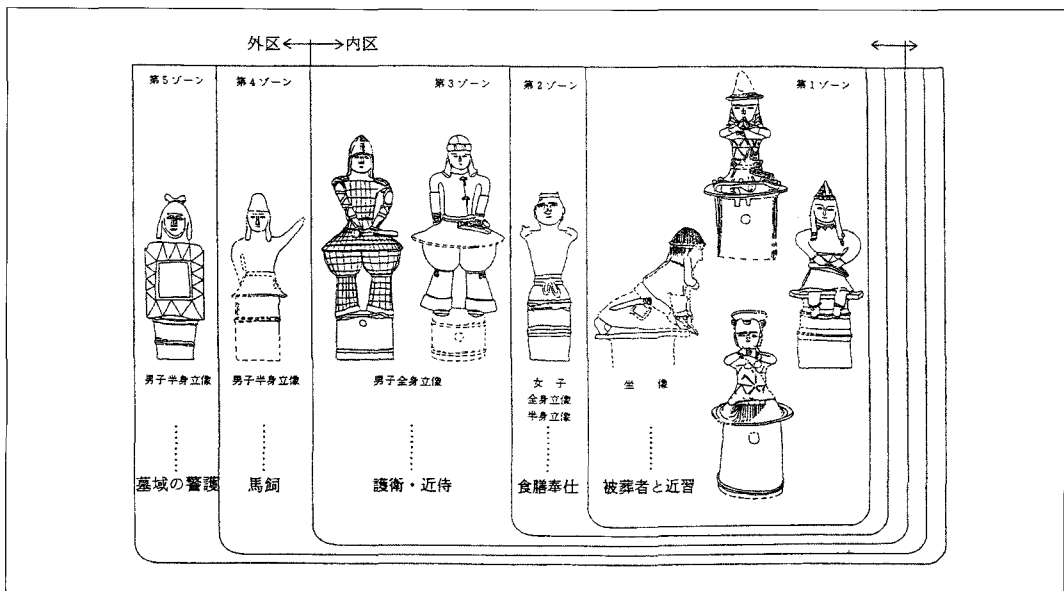
43) 주로 지방호족이 조정에 종속하는 증거로서 姉妹나 딸을 獻上했다. 체녀들은 궁정에서 천황을 위하여 食膳봉사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下原幸裕, 2003, 「앞글」(주 22), 159).

44) 下原幸裕, 2003, 「앞글」(주 22), 161.

45) 瓦塚古墳의 埴輪群像의 기본적인 내용과 설명은 若松良一(若松良一, 1992, 「앞글」(주 32), I~V의 로마자의 구분은 小田富士雄(小田富士雄, 1998, 「앞글」(주 36))의 방법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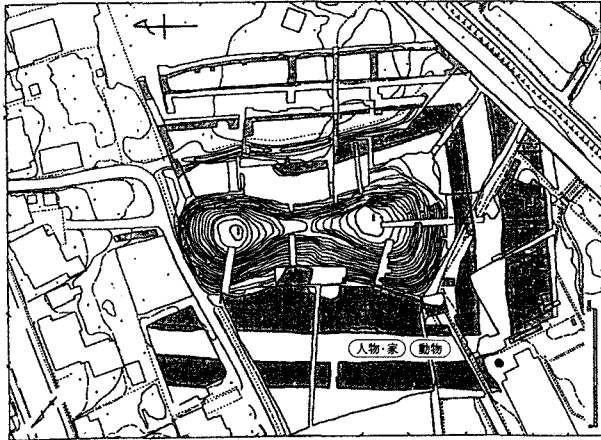
B군은 음악 그룹의 女子座像 1개 · 남자 彈琴座像 2개와 舞蹈그룹의 남자상 3개 · 여자상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가형 埴輪 2동 중에서 앞의 건물은 무대, 뒤의 건물은 빈옥이다. [II]는 [I]그룹의 남쪽 15m정도 식륜이 없는 공간이 있으며, 盾形 埴輪이 집을 지키고 있다. [III]은 그 남쪽에는 여자상 1개가 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인물과 장식된 말이 있다. [IV]는 그 남쪽 근접한 곳의 조사(1991년)에서 장식 말 3개체 이상, 인물 4개체 이상, 水鳥 2개체, 개 2개체, 사슴 1개체가 출토되었다. [V]中堤 남쪽의 모퉁이에서 盾持人埴輪이 발견되었다(삽도 4).

이러한 埴輪群의 배치를 바탕으로 殯 의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고 있다. “피장자의 거택에서 떨어져서 殯屋이 설치되었으며, 그 앞쪽에 세워졌던 高床式 建物에서 彈琴, 唄女, 춤추면서 진혼의 遊(아소비)가 전개되며 병행하여 巫女들이 神饌 등의 供獻祭儀를 맡아하고 이것을 武人들이 警固하고 있다. 또한 祭儀空間에서 떨어져서 복수의 장식된 말이 대기하고, 수렵이 거행되고 있다. 후자는 특히 공간적인 격리가 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犠牲獸의 공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해할 경우에 形象埴輪群이 나타내는 것은 죽은 수장의 재생을 기대하고 실시된 殯의 상황이므로, 이것은 神饌供獻, 진혼의 歌舞, 犠牲獸를 얻기 위한 수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埴輪群像의 배치에서 볼 때 殯 의례는 鎮魂을 위한 歌舞, 무녀 및 채녀의 공헌의례, 武人의 호위, 그리고 희생수를 얻기 위한 수렵 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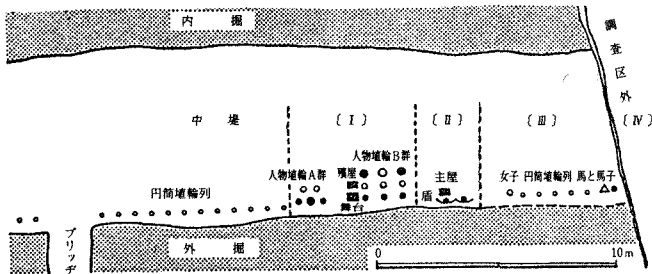


〈삽도 3〉 인물식륜군의 배치 (塚田良道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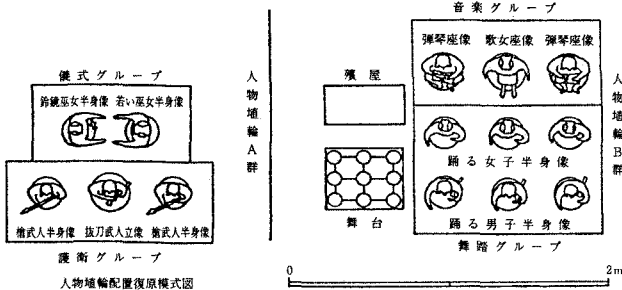
46) 若松良一, 1992. 「앞글」(주 32), 152~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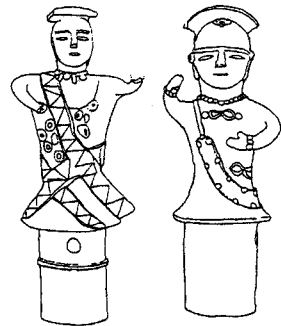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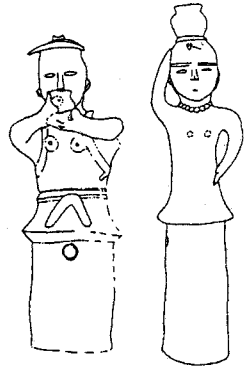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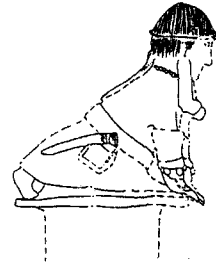
(1) 形象食器의 배치(●는 盾持人埴輪 추정위치)



(2) 形象食器 배치의 복원도 (인물 ● : 남자, ○ : 여자)...일부가필



(3) 瓦塚古墳 形象埴輪群의 복원도



<삽도 4> 瓦塚古墳 形象埴輪群의 복원과 埴輪

2. 裝飾壁畫에 나타난 모습

고분의 玄室에 그려진 장식벽화를 통해서도 殯 의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宮ヶ尾古墳에서는 側壁과 奧壁에 인물을 비롯한 線刻畫가 그려져 (삽도 5-②)⁴⁷⁾,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奧壁에는 殯이라고 생각되는 圖案이 확인되었다. 즉 가장 위쪽에 손을 올리거나 내리고 있는 5인의 인물과 기둥(柱)이라고 생각되는 縱線, 그리고 오두막 모양의 그림과 그곳에 가로누운 듯한 인물 한 사람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빈옥에서 歌舞를 하고, 진혼을 달래거나 초혼을 바라는 기도로서 殯의 상황을 그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⁴⁸⁾.

五郎山古墳의 玄室 奧壁의 왼쪽아래에는 인물, 동물, 家 등의 도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삽도 5-①). 왼쪽 끝의 切妻지붕의 家, 이것을 향해서 예배하는 듯한 자태의 인물은 붉은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스커트상의 복장으로 보아 여성(司祭者(巫女))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과 家사이에 양 손발을 벌린 남성, 여성의 오른쪽에는 양손을 들어 오른손은 머리 위의 장식(?)에 대고 있으며, 붉은 말에 탄 것 같은 도상이 보인다. 아래쪽에는 왼쪽으로 향한 四足獸 2마리를 상하로 배치하고, 그 오른쪽에 朱點을 넣은 旗를 손에 쥐고 말을 타고 왼쪽으로 향하는 남성을 배치하고 있다. 예배하는 여성의 오른쪽 위에는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한 인물과 그 왼쪽 앞에 녹색으로 그려진 四足獸가 있다. 이 사족수의 몸에는 朱線이 덧칠해져 있어서 활에 맞아서 죽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이 圖像에 대해서 小田富士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殯(喪)屋에 예배하는 무녀, 旗를 갖고 승마하고 게다가 諸獸(말과 개 등)를 이끌고 참가하는 인물, 또한 희생수를 죽이는 行爲의 圖像등 일련의 정리된 群像은 바로 殯(모가리)儀禮에 참가하고 있는 情景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中略) “상단의 벽면에 흑색 남성상과 3색을 덧칠한 여성상도 볼 수 있다. 死者의 이름을 부르고 재생을 바라는 招魂行爲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것이다.”⁵⁰⁾ 이러한 장식벽화는 바로 殯(모가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埴輪群像이나 장식벽화에서 殯 의례의 모습의 재현은 C-1이나 D-1의 문헌 기록에 나타난 殯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令集解』喪葬令에 遊部の 이름의 由來가 있고, 殯宮에는 武器나 酒食으로써 供奉하는 遊氏が 명기되어 있는 것⁵¹⁾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의 埴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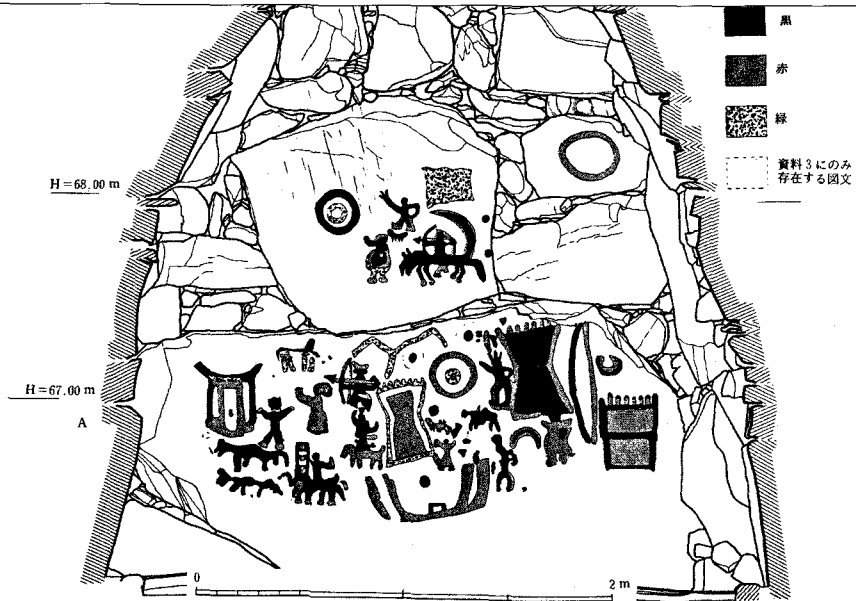
47) 田中良之, 2004. 「앞글」(주 37).

48) 田中良之, 2004. 「앞글」(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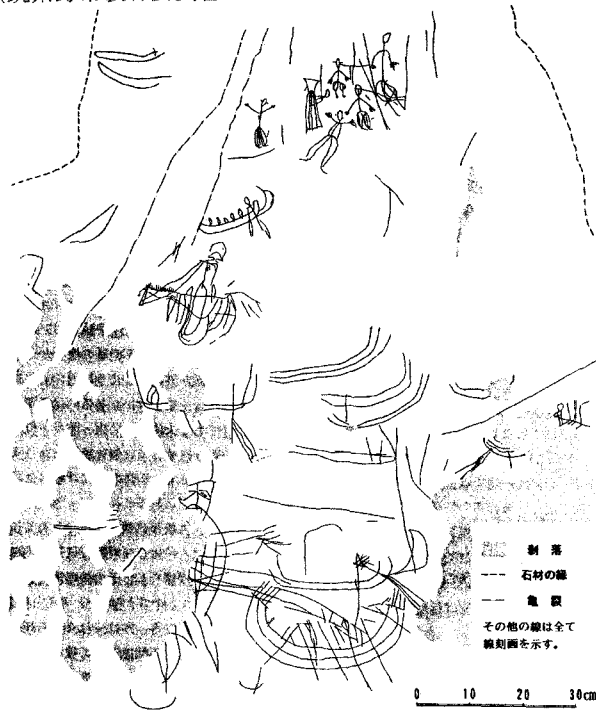
49) 이 채색벽화의 설명은 小田富士雄, 1998. 「앞글」(주 36), 68~80을 기초로 하였다.

50) 小田富士雄, 1998. 「앞글」(주 36), 74.

51) 若松良一, 1992. 「앞글」(주 32), 156, 재인용.



① 五郎山古墳 (筑紫野市教育委員会 1998)



② 宮ヶ尾古墳(田中良之 2004)

〈삽도 5〉 장식벽화에 나타난 모가리

배치 및 장식벽화 등의 검토에서 볼 때, 殯 의례의 모습은 진혼과 초혼을 바라는 기도나 가무, 犠牲獸와 음식물의 공헌 등 서로 일치하는 점이 많다.

V. 結 語

일본 고대의 상장례에서 殯은 중요한 의례로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여러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 殯의 기간은 각 문헌에 따라,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천황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5년 8개월까지 그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또는 무덤의 축조기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혈식 석실에서 검출된 파리의 애벌레나 피장자의 대변의 분석결과를 보면, 殯은 장기간 걸친 것이 아니라 문헌의 기록과 거의 합치하는 8일이나 10여일로 볼 수 있다. 특히 황혈식 석실의 추가장의 경우에는 고분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殯의 기간을 일주일 또는 짧은 기간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할 것 같다. 또한 겨울이나 여름이나에 따른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殯의 기간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정지산 유적의 수혈구덩이는 氷庫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殯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시설이며, 이 얼음은 死體의 부패를 방지하고 殯의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빈옥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빈옥의 위치는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한 견해는 集落內나 屋外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日本書紀』의 천황의 기록과 『隋書』 倭國傳의 貴人の 屋外와도 일치한다. 특히 천황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지만, 宮의 근방인 南庭이 많다. 한국의 武寧王妃는 궁 밖의 정지산으로 그 방위는 서편(西地)에 해당된다. 빈옥의 위치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비교에서는 “屋外란 점에서는 일본과 공통되며 서편이라는 점에서는 중국과 공통된 것”²⁾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분군내의 주거지를 빈옥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매장주체부의 내부나 주위에 주혈이 있는 것을 빈옥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의례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또한 개개의 고분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빈옥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고분내에 있는 주혈도 피장자의 사후부터 매장주체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까지는 별도의 빈옥이 필요로 하며, 더욱이 殯 의례시의 歌舞나 供膳儀禮를 행하는 장소

52) 권오영, 1999. 「부록1 정지산 유적과 백제의 喪葬儀禮」 『艇止山』, 국립공주박물관 · (주) 현대건설, 369.

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⁵³⁾.

빈옥의 구조에 대해서는, C-2나 D-2의 문헌기록에는 칼로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고분에서 출토되는 埴輪이나 장식벽화에 묘사된 것을 보면, 문헌기록과는 다르다. 埴輪 중에서 家形埴輪의 구조를 보면, 4壁이 세워진 寄棟造 가옥으로 용마루에 堅漁木이 달린 폐쇄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분의 장식벽화에 묘사된 것은 4개의 기둥이 있는 切妻造의 지붕의 구조이다.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天皇이나 수장층의 빈옥은 草堂과 같은 구조라기보다는 견어목이 달린 견고한 가옥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빈옥의 내부상태는 어떤 조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人骨에 부착된 파리의 圍蛹殼이 검출상태로 보아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파리가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체는 어느 정도 빛이 들어가는 곳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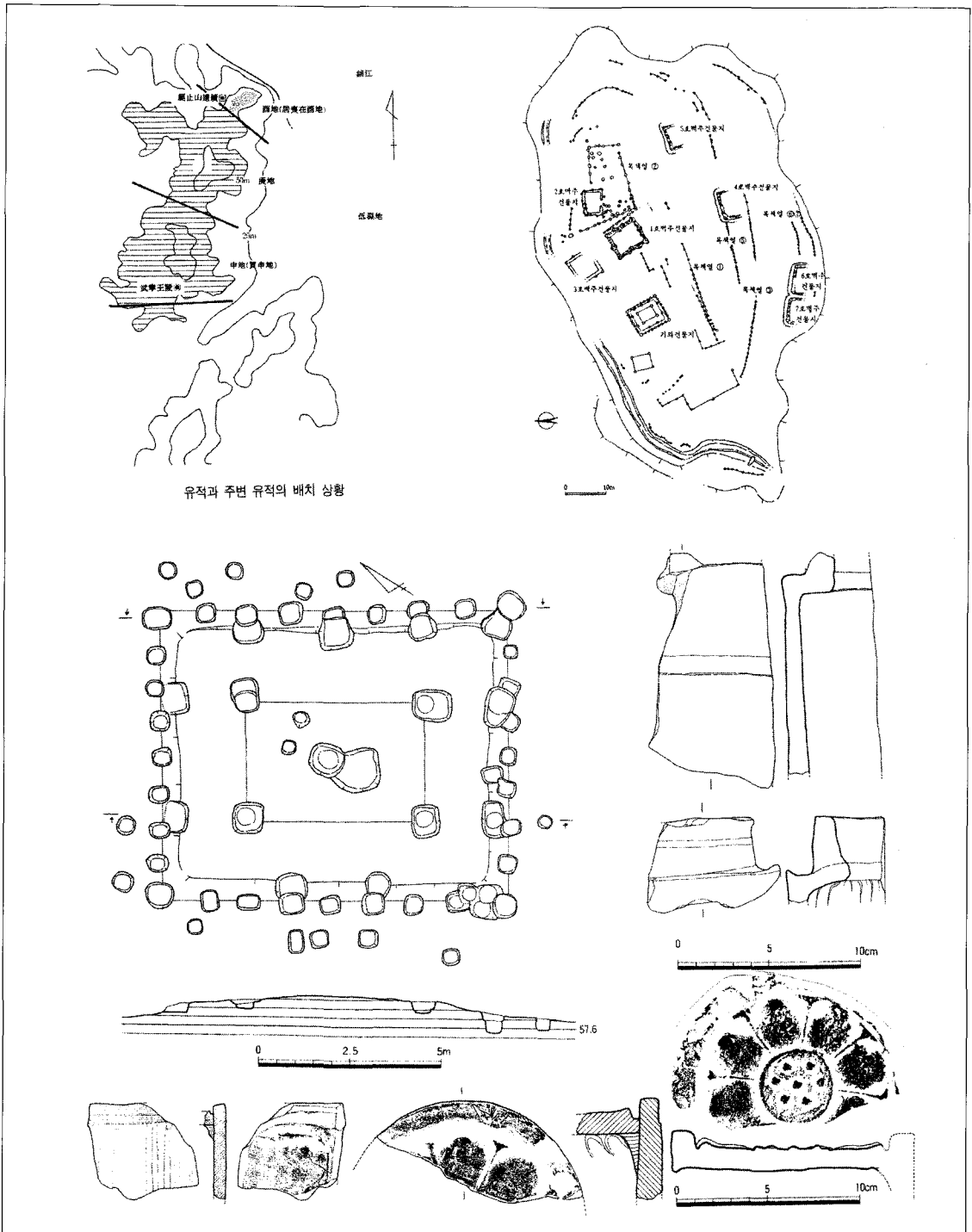
殯 의례의 모습은 고대 문헌의 기록, 고분의 埴輪배치, 그리고 玄室의 장식벽화에 묘사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문헌에서는 殯 의례의 각 분담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歌舞 및 供膳 등의 의례가 행해졌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분의 주위에 배치된 각종 埴輪群은 殯 의식을 재현하는 듯한 人物埴輪群, 家形埴輪, 각종 動物埴輪群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장식벽화에서는 문헌기록의 각 담당자와 埴輪群의 배치와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殯의 기간에 실시된 의례는 사자의 재생을 기원하거나 진혼을 위한 歌舞, 그리고 供膳儀禮 등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일본 고대의 殯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고대 殯에 대한 상호비교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선학들의 고견과 질정을 바란다.

이 글은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小田富士雄 선생님과 武末純一 선생님은 일본 고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또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다. 金秉模 선생님과 裴基同 선생님은 다른 나라의 고고학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이에 감사드린다. 日本 福岡大學 考古學研究室, 九州大學 考古學研究室, 九州地域の 여러 선생님의 도움과 격려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53) 공주 정지산 유적의 경우에는 기와 건물지를 빈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상장례와 관련된 각종 祭禮는 빈전 앞 광장에서 빈전과 왕릉을 바라보고 거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장(祭場)—기와 건물지(殯殿)—宋山里고분군(武寧王陵)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金吉植, 2001.12, 「앞글」(주 24)).



유적과 주변 유적의 배치 상황

<도면 1> 공주 甕止山 유적의 殯殿(국립공주박물관 · (주)현대건설 1999)

【참고문헌】

1. 일본 논저

『日本書紀』

『古事記』

久保哲三, 1984. 「モガリと古墳」『季刊考古學』第9号, 雄山閣

田中良之・村上久和, 1994. 「墓室内飲食物供獻と死の認定」『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39号

田中良之, 1999. 『人骨および人骨付着昆虫遺体からみた古墳時代モガリの研究』, 平成9~10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 研究成果報告書,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田中良之, 2004. 「殯再考」『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筑紫野市教育委員會, 1998. 『國史跡五郎山古墳-保存整備事業に伴う發掘調査-』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 57集, 福岡大學 考古學研究室

小田富士雄, 1998. 「彩色壁畫考」『國史跡五郎山古墳-保存整備事業に伴う發掘調査-』筑紫野市文化財調査報告 57集, 筑紫野市教育委員會・福岡大學 考古學研究室

小田富士雄・瓜生秀文 1999. 「原始・古代 第4章 古墳時代」『筑紫野市史』上卷

小田富士雄, 2000. 「武寧王陵文物をめぐる東アジア世界, 補説・武寧王陵誌石と王室喪葬儀禮」『日韓交渉考古學の基礎的研究—原史・古代を中心に—』第240号, 福岡大學總合研究所

笹川龍一, 1995. 「線刻畫古墳の諸問題」古代學協會四國支部 第9回 徳島大會資料

若松良一, 1992. 「再生の祈りと人物埴輪—埴輪群像は殯(もがり)を再現している—」『東アジア古代文化』72号, 大和書房

岩瀬透, 1998. 「第3章 古墳のおわり」『大化の薄葬令』, 特別展圖録 16, 大阪府近つ飛鳥博物館

泉森皎, 1983. 「古墳と周邊施設 —古墳の墓域と喪屋遺構について—」『關西大學考古學研究室開設參拾周年記念考古學論叢』, 關西大學考古學研究室

川村邦光, 1995. 「モガリ(殯)と他界觀」『西谷眞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塚田良道, 1996. 「人物埴輪 形式分類」『考古學雜誌』第81卷 第3号, 日本考古學會

- 土生田純之, 1991. 「古墳における儀禮の研究—木柱をめぐて—」 『九州文化研究所紀要』 36号
和田萃, 1969. 「殯の基礎的考察」 『史林』 第53卷 第5号
——, 1982. 「飛鳥・奈良時代 喪葬儀禮」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國家』, 學生社
下原幸裕, 2003. 「古墳時代喪葬の理解にむけて」 『七隈史學』 第4号, 七隈史學會

2. 한국 논저

- 국립공주박물관 · (주)현대건설, 1999. 『艇止山』, 학술조사총서 제7책
권오영, 1999. 「부록1 정지산 유적과 백제의 喪葬儀禮」 『艇止山』, 국립공주박물관 · (주)현대
건설
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韓國古代史學會
金吉植, 2001.12. 「水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 遺蹟의 性格」 『考古學誌』 第12輯, 韓國考古美
術研究所
李民樹 譯, 1995. 『朝鮮傳』 探求新書 67, 探求堂
李南奭, 1999. 「부록1 정지산 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 『艇止山』, 학술조사총서 제7책, 국
립공주박물관 · (주)현대건설
장철수, 1995.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

The Academic Trends and Perspectives of the Ancient Mogari Ritual Ceremony in Japan

Kang, Yun-seok

Mogari is an ancient Japanese ritual ceremony, part of a series of ceremonies which are conducted from people's death to the time that they are buried in the tomb. Mogari has been recorded in a number of historic documents, including 『ILBONSEOGI(日本書紀)』. Therefore, by studying these documents, we can determine that Mogari was conducted from the 3rd century to the 8th century.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images of Mogari displayed in the arrangements of Haniwa, engraved paintings, and decorated wall paintings.

In this paper, I especially examined the period of Mogari, the location and structure of the soul's temporary house, and details about Mogari as described in ancient document records and archaeological relics. The actual period of Mogari has been recorded very in different documents. These documents do not correspond in spite of them being written in the time of the same Emperor. One document record describes the Mogari's house location as being outside of the house, while further research has shown the location to be around the ancient tomb. According to the document's record, the structure of the soul's temporary house is so fragile that it can be cut by sword. However, the house-shaped Haniwa or the decorated wall paintings show a very strong structure. By studying the Mogari images in the Haniwa or the decorated wall paintings, we can see that the Mogari ritual included forms of singing and dancing as well as an honoring the dead service.

There are strong similarities between ancient Korean and ancient Japanese ritual customs. As such, even though this study is about the Japanese Mogari ritual, I expect that Korea's ancient ritual ceremony follows the same pattern.

[Key words] Mogari, ritual ceremony, soul's temporary house, Haniwa, decorated wall painting